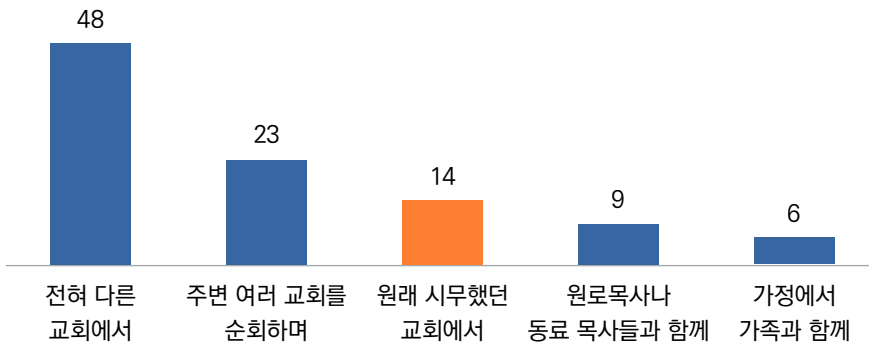




## [목회자 은퇴 후 주일 예배 처소] 목회자 86%, 은퇴 후 현 시무교회 떠나 예배 드릴 계획!

- 목회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 이용자 중 목사님을 대상으로 '은퇴 후 주일 예배 처소에 대한 의견'을 물은 결과를 최근 넘버즈 poll을 통해 발표했는데, 이를 살펴본다.
- '전혀 다른 교회에서' 드리고 싶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(48%)로 가장 많았으며, '주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'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도 23%였다.
- 반면 '원래 시무했던 교회에서'를 선택한 비율은 14%에 불과해, 대다수인 86%의 목회자는 은퇴 후 현 시무교회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을 드러냈다.

[그림] 은퇴 후 주일 예배 처소 (목사, %)



※출처 : 목회데이터연구소, 제118차 넘버즈 poll 결과, 2025.10.27.  
Note) 목회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 이용자 대상 조사로 해석에 유의